

## 16차 IAPRI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ackaging Research Institutes) 세계 포장 학술대회 (World Conference) 참가기

김재능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

국제포장연구기관협의체(IAPRI)는 1971에 유럽에서 설립되어 지난 37년 동안 포장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국제적으로 각 나라의 포장교육 및 연구기관과 협력해 각 나라의 패키징 교육기관과 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와 기술을 나누는 국제 포장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다. IAPRI의 본부는 유럽에 있으며 conference와 symposium을 격년제로 매년 나라를 바꾸어 가며 개최하고 있으며, conference는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패키징 관련 학자들이 다 참여를 할 수 있고, symposium은 회원들만으로 참여하는 학술연구대회이다. 현재 한국에서 회원은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가 정회원(full member)으로 활동하고 있다.

금년은 conference가 열리는 해로 제16차 World Conference가 태국 방콕에서 Kasertart 대학교 패키징학과가 호스트로 2008년 6월 8일에서 12일까지 5일간 23개국에서 약 300명의 학자가 참석하여 내실있고 성대한 국제학술대회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에서 연세대학교 패키징학과와 본인과 대학원생, 그리고 경남대학교 이동선 교수팀이 참가하여 논문을 발표하고 포장분야 관련 학자 및 전문가들과 교류를 하는 유익한 자리였다.

주요 발표는 technical session과 poster session으로 진행되었고, 총 21개의 session으로 열렸다. 미국, 남미, 서유럽, 북유럽, 아시아에서 포장관련 패키징학과와 연구기관이 많이 참여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패키징전문 국제학술대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패키징분야의 어떤 연구가 수행중이며 어떤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학술대회가 되었다. 주요 프로그램을 보면 개회식 직후의 plenary lecture로서 미국 Michigan State University의 S. Paul Singh 교수의 "Challenges Meeting Packaging Sustainability Initiatives on a Global Basis", 호주 University of Queensland의 Gordon Robertson 교수의 "Trends and Innovations in Food Packaging", 태국 Thai Container Limited의 Twatchia Wongpaisar 박사의 "Packaging in Sustainable Edge" "제목의 강의가 있었다. 구두발표인 technical session은 Packaging for Food & Agriculture, Distribution Packaging, Active & Intelligent Packaging, Environment & Sustainability, Packaging Education/

Testing & Standard, Packaging Testing & Standard, Bio-based & Packaging Materials, Packaging Design & Development, Packaging Materials, Packaging Management 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는데, 특히 Packaging for Food & Agriculture, Distribution Packaging, Active & Intelligent Packaging, Environment & Sustainability, Bio-based & Packaging Materials, Packaging Design & Development의 session에 많은 논문이 발표되었고, 관심이 집중되었다. 특히 포장이 갖는 환경적 측면에 대한 여러 연구와 함께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포장이 갖는 기능적 측면과 효율적 설계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구두발표와 비슷한 session으로 구성된 포스터 논문발표장에도 이틀간 발표자와 여러 참가자 사이에 열띤 토론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술행사와 함께 조직위원회에서는 여러 문화행사도 함께 열어서 참가 학자들 상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다. 태국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고 즐길 수 여러 시간이 있었고,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저녁 시간 전통 태국춤에 대한 공연이 있었고, 마지막날 저녁에 방콕 시내의 강에서 대형식당이 있는 배를 전체를 빌려서 만찬을 하면서 방콕의 야경을 구경했고 해가 지면서 밤 10시까지 춤을 추며 회원들간의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매우 기억에 남는다.

각 나라의 패키징학과 교수들, 연구소 연구원들이 이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애를 써서 연구한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저녁마다 만찬을 즐기며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가지면서 패키징의 국제화가 무엇인지 새삼 느끼게 해준 유익한 학술대회였다. 본인으로서는 일본포장학회 임원들을 만나 양국 포장학회간의 교류의 확대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수 있었다. 내년에는 미국 Clemson대학교 패키징학과가 호스트로 Clemson 대학교에서 회원들만 참석하는 symposium이 열리고 2010년에는 중국에서 17회 World Conference가 중국의 지난대학교 패키징학과가 호스트로 천진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국에서는 2016년에 회의를 열 계획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한국에서도 많은 패키징학자들이 참석하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 한국 패키징의 연구 위상이 올라가기를 희망한다.